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128)

제주·일본 제3차 해외비교-③하치조지마 특공기지  
山 하단부 뚫고 3층 구조 진양대기지 구축 눈길

입력 : 2009. 06.11. 00:00:00



▲3층구조로 된 호라자와 진양대호 내부에서 취재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 카이텐기지 송악산 해안과 구조·규모 비슷

### 내부 철제류는 한국戰 당시 비싼 값에 팔려

하치조지마의 일본군 군사시설은 제주도의 그것과 여러모로 비교된다.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 본토결전을 위한 최초의 요새라 불렸던 하치조지마는 특공의 섬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카이텐(回天)기지와 신요(震洋)기지가 만들어졌다. 카이텐기지는 관동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 들어섰다고 한다.

인간어뢰라 불린 카이텐 기지는 소코토항(底土港)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이곳에는 카이텐 격납호 2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1기만 볼 수 있다. 취재팀이 둘러본 카이텐 격납호는 폭 3m에 길이는 약 40m에 이른다. 이 정도의 격납호 내부 길이는 송악산 해안 갯도의 규모와 비슷하다. 약 15m 길이의 카이텐 2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다. 실제로 이곳 격납호에는 각각 2기의 카이텐이 들어있었다.

이곳의 카이텐 부대는 '회천의 섬'으로 유명한 야마구치현 오즈시마(大津島)에서 1945년 5월에 파견됐다. 오즈시마에 배치됐던 제2카이텐 부대에서 카이텐 8기와 특공대원 8명이 배속됐으나 종전 때까지 실제 출전하는 일은 없었다. 그 후 카이텐 동체는 격납고 안에서 폭발됐고, 현재 내부 벽면에는 당시 폭발 흔적으로 보이는 철제파편이 군데군데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갯목흙 흔적도 비교적 뚜렷이 남아있다. 격납호 내부의 철구조물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헐렸다. 전쟁으로 인해 철재류가 귀해지자 당시 고철업자가 주민들에게 의뢰해서 철구조물을 전부 뜯어갔고,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한다.



하야시 카오루(林薫·60)씨는 "당시에는 카이텐을 바다로 발진시키기 위해 콘크리트로 궤도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나 1965년 소코토항 공사로 이 일대가 매립되면서 예전의 형태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카이텐기지는 히노가타 지역에 남아 있다. 현재 바닷속으로 뺏어나간 콘크리트 궤도시설과 격납호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신요, 즉 진양대기지는 호라자와(洞輪澤) 지역에 있다. 이곳의 진양대 시설은 해안가에 위치한 산 하단부의 응회암층을 뚫고 U형 3층 구조로 만들어진 점이 특이하다.

▲호라자와 진양대호 내부에 만들어진 집수시설(사진 위)과 소코토항 카이텐 기지 내부(가운데), 히노가타 지역에 남아있는 카이텐 기지 유도로 흔적.

제주도의 경우, 서우봉이나, 일출봉, 삼매봉, 수월봉 등은 하나같이 해안가에 직선형으로 굴착해서 특공기지를 만들었다. 반면에 하치조지마는 진양정 격납고가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3층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층 사이를 오가는 것이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벽면에는 간신히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뚫은 현장도 볼 수 있다.

내부에는 진양엔진의 성능시험, 즉 프로펠러나 스쿠류 등의 작동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 추정되는 집수시설이 눈에 띈다. 벽면에는 곡괭이 자국이 선명하며, 천장부에는 건전지 등 당시 전기를 공급했던 시설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야시씨는 "호라자와 진양대호는 제16진양특별공격대기지로 3개대 50척이 이곳에 있었으며, 리어커에 진양을 실어 바다까지 레일로 운반했다"고 말했다.

태평양상의 조그만 섬 하치조지마의 사례는 제주도 일본군 군사시설과 좋은 비교자료가 된다. 또한 이 섬에까지 한국인이 동원됐다는 점은 식민지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일제가 저지른 침략전쟁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탐사포커스]제주도에는 4종류 해상 특공병기 계획

취재팀이 찾은 하치조지마에는 일본 해군 해상특공기지 가운데 회천과 신요기지가 만들어졌다. 조그만 섬에 2종류의 특공기지가 구축됐다는 것은 이 섬의 전략적 중요성을 말해준다. 하지만 제주도와 비교하면 그 정도는 훨씬 떨어진다.

일본 해군의 해상특공병기는 모두 5종류가 있다. 회천(回天·카이텐)과 진양(震洋·신요) 이외에 교룡(蛟龍·교류), 해룡(海龍·카이류), 복룡(伏龍·후쿠류) 등이 그것이다.

회천은 어뢰를 개조해서 그 안에 사람이 탑승해서 직접 공격하는 것이고, 진양은 모터보트에 폭탄을 장착해서 함정에 부딪히는 병기다. 교룡과 해룡은 소형잠수함에 폭탄을 탑재하여 함정에 돌격하는 것으로 날개가 달려 있다. 복룡은 병사를 간단한 잠수장치로 바닷속으로 가라앉혀 봉 끝에 매단 폭뢰로 상륙용의 작은 배를 공격하기 위한 원시적인 인간특공병기다.

제주도에는 어떤 특공병기가 배치됐을까.

당시 제주도에는 5종류의 특공병기 가운데 회천·진양·교룡·해룡 4종류가 배치될 예정이었다. 4종류의 특공병기가 배치되기로 계획된 곳은 일본 본토를 포함 태평양전쟁 당시 10곳 밖에 없었다. 그만큼 일제가 일본 본토사수를 위해 제주도를 중요한 전쟁기지로 인식하고 있었고, 섬 전체를 중무장화 했음을 보여준다.

이 중 실제로 진양대는 한경면 수월봉과 성산 일출봉, 서귀포 삼매봉 해안에 주둔했으며, 특공병기인 진양정 100척이 배치됐다. 회천은 송악산 해안에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일본이 패망하면서 실현되지는 않았다.

서우봉에도 특공병기가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주둔하지는 못했다. 특공기지 구축에는 전라도 지역 등 육지부 광산노동자들이 많이 동원됐으며, 그 생생한 현장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